

파리는 불타고 있다!

Lamentableness of Our Reality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했던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제목이다. 철수하던 독일군 부대에 상부로부터 파리 전체를 불태우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을 하던 독일군 지휘관은 차마 파리를 불태우지 못하고 그냥 철수한다. 거짓 보고를 듣고 파리가 불타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사령부에서는 '파리가 불타고 있다'는 노래를 내보내고...

만약 그때 파리가 불타 버렸다면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유물의 과반수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주는 8세기 무렵에 이미 인구 100만이 넘는 세계 4대 도시 중의 하나였다. 물론 목구조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의 왕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데 대하여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민족임은 역사의 흔적으로도 뚜렷이 각인되어 있다.

건축을 공부한 지도 어언 30여년이 지났다. 세계 문화유산의 70% 이상이 건축물이니 '건축인은 문화의 창작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강의하셨던 은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그 말씀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갈수록 황폐해지는 현실 앞에서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조차 무색하다. 예로부터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각각의 신분에 따라 사회적 차별이 심했지만, 작금의 현실도 과거 못지않게 신분의 차이가 지나친 것 같아 분기를 누르기가 쉽지 않다. 계층에 따른 서열(hierarchy)이 그 모습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최근에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한 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늘날 신분차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무척이나 빈곤했다.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아 남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겨울철에는 연탄가스에 질식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다. 어린 시절 달동네에서 자취생활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연탄가스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렵던 시절에도 우리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정직, 질서, 예의 등을 강조하셨다. 허나, 지금은 부정한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어도 가난한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다는 금전만능(金錢萬能)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옛말로 하면 임금, 정승, 판서, 사농공상 모두가 쌍놈인 세상이 된 것이다.

인간은 두발을 땅에 딛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신의 속성과 동물의 욕구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의 신적 속성은 점점 약해지고, 동물적 욕구만 강조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남기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이라는 화두를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문화인의 긍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다.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보면서 불타고 있는 파리의 모습을 연상해 본다. 혹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세상을 불태우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박재웅 / Park, Jae-ung, KIRA
박재웅 건축사사무소

약력

-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 대학원,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조중위원
-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현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